

# “올해도 뜨거웠다”… 사랑의 온도탑 ‘활활’



2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희망2026나눔캠페인' 폐막식에서 광주사랑의열매 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초대 광주회생법원장에 김성주 부장판사

장인·아내 외조부까지 법원장 이력…법조계 ‘옹서 3대’



오는 3월에 신설되는 광주회생법원의 초대 법원장에 임명된 김성주(59·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이력에 아목이 솔리고 있다.

김 신임 법원장이 장인과 아내의 외조부까지 모두 법원장을 지낸 ‘옹서(翁婿) 3대 법원장’이라는 이례적인 이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주 신임 광주회생법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석산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광주지법과 순천지원,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법원장의 장인은 제25대 광주지방법원장(2000년 7월~2002년 2월)을 지낸 전도영 전 법원장이다. 그는 사법고시 11회 출신으로, 오랜 기간 광주에서 법관 생활했다.

여기에 한 세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 전 법원장의 장인이자 김 신임 법원장 아내의 외조부인 고(故) 김용근 전 법원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광주·전남 ‘희망 2026 나눔캠페인’ 폐막

### 광주 59억·전남 115억원…목표액 초과 달성 지역민 나눔·온정 증명…“생계·주거비 지원”

광주·전남 소외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이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2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으로 모인 성금은 총 59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51억2000만원)을 7억9800만원 초과한 115.6도를 기록했다.

이로써 온도탑 수은주는 2020년(102도), 2021년(100도), 2022년(135도), 2024년(110도), 2025년(116.1도)에 이어 6년 연속 100도를 넘겼다.

올해는 개인 기부가 강세를 보였다. 지난해보다 29억7000만원 증가한 28억6900만원을 기록했다. 다만 법인 기부는 전년 대비 3억3800만원 줄어든 30억3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캠페인 기간 1억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니 소사이어티’에는 신규 회원 6명(정행중·유) 한양산업 대표, 박문수 센도리 대표, 이종희 주예코

그룹 회장, 김명준 혜성요양병원 이사장, 하상구(㈜상일하이텍 대표, 이영민 화순고려병원장) 이 가입해 나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개인 기부도 진행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기부, 학생들의 학교 축제 수익금 기탁, 지역 자영업자의 ‘착한가게’ 참여, 직장인 급여 끝전 나눔 등 생활 속 기부가 이어졌다.

법인 기부도 꾸준히 이어졌다.

1억원 이상 법인 기부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에는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도경건설㈜ 등 3곳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또 ‘나눔 기업 릴레이 기부 철린지’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232곳의 나눔하여 로가 탄생했다.

구체길 광주사랑의열매 회장은 “쉽지 않은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광주시민들의 따뜻한 참여가 캠페인을 완주하게 했다”며 “모아주신 성금은 지역 복지 현

장과 취약계층을 위해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에서도 목표를 웃도는 성과가 나왔다.

전남 사랑의 온도탑은 115억원을 모금해 목표 대비 101%를 달성했다. 세부적으로 개인 기부는 53억원(46.1%), 법인 기부는 62억원(53.9%)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전남 사랑의 온도탑은 2019년(101도), 2020년(100도), 2021년(131도), 2022년(118도), 2023년(106도), 2024년(118도), 2025년(112도)에 이어 7년 연속 100도를 넘겼다.

당초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역민의 지속적인 참여로 최종 목표액 113억9000만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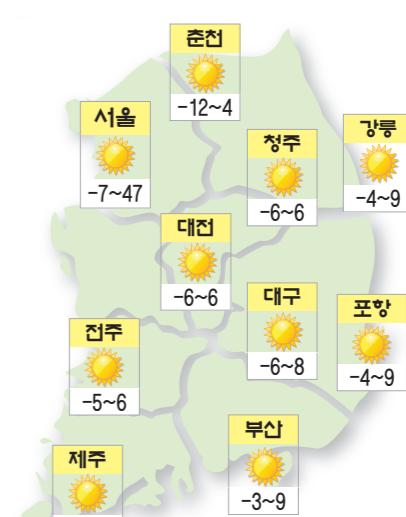
허영호 전남사랑의열매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분 한 분의 나눔이 모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며 “기부금은 지역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페인 기간 모인 성금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안전복지 돌봄 지원사업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이주배경청소년 성장기회 격차 해소 사업 지원 △복지 현장 지원 사업 등으로 사용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해물 07:30 일풀 18:34  
해금 18:03 일점 08:18



미세먼지 농단경보!	날씨	온도
광주	맑음	-3~7
목포	맑음	-2~5
여수	맑음	-3~8
순천	맑음	-3~8
구례	맑음	-5~8
제주	맑음	-3~7
제주	맑음	-5~6
포항	맑음	-2~8
목포	맑음	2~7
여수	맑음	-5~9
진도	맑음	-1~6

밀물 (고) 02:52 / 15:39  
썰물 (저) 08:14 / 20:48

밀물 (고) 10:22 / 22:31  
썰물 (저) 03:51 / 16:22

## “추가요금 안 내면 못 내려”

만년필 ○…대리운전 추 가요금 갈등 끝에 승객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약 20분간 질주한 기사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찬수 재판장은 김금현으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45)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31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67)의 호출을 받아 차량을 운전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피해자를 하차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광주 북구의 한 성당 인근에 도착했으나, B씨가 추가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최초 출발지까지 약 14km 구간을 빠른 속도로 운행하며 약 20분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하차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김금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광주·전남 교통문화지수 큰 폭 개선됐다

### 보성·광주 북구, 지표 점수 상승 ‘전국 1·2위’

광주·전남 지역 교통안전 문화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발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84.48점을 기록해 전년(81.39점)보다 3.09점 상승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올해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개선 폭이다. 전국 순위도 전년 9위에서 3위로 6계단이 나뛰어올랐다.

보행자 보호와 교통법규 준수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점수가 고르게 상승한 점이 순위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도 두드러진 성과가 나왔다. 전남 보성군과 광주 북구는 ‘교통문화 개선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전국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했다.

보성군은 운전행태 개선 부문에서 정지선 준수율과 신호 준수율, 방향지시등 사용률이 크게 향상되며 전국 순위가 47위

에서 4위로 급상승했다. 교통안전 부문에서도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 감소와 사고 발생 정도 개선으로 순위가 51위에서 27위로 올랐다.

특히 이茸자 안전모 착용률이 64.41%

에서 95.00%

로 30.59%p

급등한 것이

종합 점수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전년 C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되며 전국에서 교통문화

지수 개선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평가 받았다.

광주 북구 역시 전년 D등급에서 A등급

으로 3단계

상승했다.

안전띠

착용률이 17.13%p

높아졌고, 보행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도 16.08%p

개선되는 등

생활 밀착형 교통안전 정책 성과가 반영됐다.

교통문화지수는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분야 18개

지표를 종합

해 100점 만점으로 산출되며, 지역별 교통안전 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한편 군 단위 교통안전 행정 노력도 평가에서는 영광군이 10.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자치구 단위에서는 광주 서구가 10.90점으로 선두에 올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북구 교통문화지수

■ 시·도별 교통문화지수

■ A등급(90%~100%)

■ B등급(80%~90%)

■ C등급(70%~80%)

■ D등급(60%~70%)

■ E등급(0%~60%)

위해 광주 역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시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금 조성 등 재원 다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광주는 시민사회가 공원 운영에 함께 할 준비가 돼 있고, 그동안 관리·운영 경험도 충분히 축적해왔다”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여건은 이미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이나 자연경관, 역사·문화유산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로, 2016년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지정 사례는 없다.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무등산국립공원과 무등산권 세계자연공원과 연계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복원을 선도하는 ‘생태도시 광주’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승태영 기자 sty1235@



광주시와 서구는 최근 서구문화센터에서 광주 중앙근린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추진방향과 과제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국가도시공원 지정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종합토론회 모습.

됐다. 토론회에는 박필순 광주시의원,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주인석 광주시 도시공원과장, 김종순 대구시 공원계획팀장 등이 참여해 국가도시공원 전담조직 구성과 안정적인 운영 역량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